

시론



김 선 기 전남도립대 교양학부·문학평론가

지금 우리는 '막말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유발자는 대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존경받을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거나 고위층들이다. 그들은 지도자로서 품위와 인간의 가치를 내뿜어준 채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정 말, 말 공부 교육기관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옛 선비는 글공부가 덕목이었다면, 요즘 사람들은 말 공부를 교양필수로 삼아야 할 일이다.

사회적으로 막말 파동은 흔히 목격되는 풍경이다. 발원지는 역시 정치권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 막말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정제되지 않는 사회지도층의 막말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대로 방류되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TV 채널의 돌발영상이라든지, 각종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산더미처럼 쏟아진 막말의 배설물이 그 심각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국어사전에서 '막말'은 ①되는대로 함부

'말 공부'가 절실한 시대

로 하거나 속되게 말할 ②뒤에 여유를 두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라고 했다. 즉, 막보기로 하는 말이나 막장에서 하는 말, 하다하다 안되면 마지막에 하는 말이란 뜻이다.

막말이 무절제하게 사용되고 일상화되면 그만큼 우리 사회는 분열과 혼란이 야기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진으로 사회적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말은 자기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다. 그 때문에 말은 감정과 의사를 정확하고 진실하게 표현해야만 그 가치가 빛나는 법이다.

특히 정치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시쳇말로 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말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동서고금의 모든 사상가가 강조해온 이유다.

정치인의 말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의 말은 정직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화려하지 않아도 논리가 정연하고 품위와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핵심을 찌르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이게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이자 덕목이다.

누군가와 말을 하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분명해진다. 호감을 느끼는 사람일지라도 소소한 대화 이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겪어 봤을 터이다. 글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모종의 불편함이 말에서는 여과 없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글에선 공공 포장하고 은근했던 태도나 가치관이 말에선 스스럼없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 말할 때의 자세, 목소리의 높낮이 등 말을 둘러싼 요소가 상대를 파악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입말이나 글말은 우리 사회의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말로 가까워진 사이도 있고 글로 연대하는 경우가 있듯, 입말과 글말의 효용 또한 다르다. 우리가 글 실수보다 말 실수에 대해선 조금은 관대한 듯싶다.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글 실수보다 말 실수가 주는 데미지는 생각보다 큼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무한 반복 재생산되기에 그렇다. 그러니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층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말의 신중함이다.

모름지기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살신성인하겠다고 나선 이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고 국민을 편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한시도 망각해선 안 된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떤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입신양명에만 몰입해 있잖은가. 이제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와 있다. 영민한 그들이 국민적 정서를 모를 리 없다. 알면서도 그러한다는 게 더화가 치민다.

社說

천일염 유통 안정화에 전남도 모든 역량 동원해야

천일염 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주산지인 신안군의 올해 4-5월 강수일수가 22일로 평년(15.6일)보다 많아 생산량이 줄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로 소비자 수요가 늘어 일시적 공급 지연이 빚어진 것이다. 일부 가공·유통업계의 사재기로 정상적 거래 시스템이 무너지고 가격 구조가 왜곡되고 있다. 실제로 20kg 기준 산지가격은 6월 3째주 2만3천500원으로 2021년 1만3천888원에 비하면 2배 가까이 급등했다.

사정이 이러하니 마트에도 소금이 동나는 상황이다. 온라인에서 직거래가 이뤄지며 '짬뽕'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하는 실정이다. 전남도가 긴급히 유통 및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재고량 12만톤을 본격 출하하고 햇소금을 충분히 확보해 주요 판매처 거점별 운반 차량을 지원하며 9월 말 종료되는 생산 시기도 10월까지 연장해 4만톤을 증산할 계획이다. 또 농·수협과 대형 소비자 등을 통한 계통 판매로 수급 조절에 나선다.

예상치 못한 품귀 사태다. 위기감이 커지고 있

다. 그러나 조만간 합리적으로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다. 너무 조급해질 필요가 없다. 소비자들은 물량은 충분하니, 여유를 가지고 적정 가격에 적기에 구매해야 한다. 생산자도 안전한 소금 생산을 위해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 조치를 해야 한다. 신뢰할 만한 정확한 정보부터 제공해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매점매석,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고 염전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강화해야 한다.

전남도는 7월 이후 햇소금 출하와 함께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5대 갯벌에서 생산되는 전남산 천일염은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도는 올해 친환경 염전 바닥재 개선 사업에 47억, 취배수용 배관 설치 4억, 친환경 포장재 7억, 생산시설 자동화 장비 보급 5억에 20억원을 지원한다. 생산 시설의 위생 관리 및 현대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퇴색해선 안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하겠다.

광주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해소 실질 방안 찾기를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은 광주도 예외가 아니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3차 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6명, 조선대병원 3명, 광주기독병원 3명이었다. 전남대병원은 올해 2명을 충원했다. 삼급종합병원의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아동·중소병원은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인력을 축소하거나 소아과목 진료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지속적인 출산을 저하의 영향이 있지만 코로나19 3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질환이 확연하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생명과 관련된 리스크가 큰 진료과를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숙이나 중환자실의 신생아를 돌보고, 소아 응급실 병동, 산부인과와 동시에 당직을 서야 하는 시스템 등으로 필수의료과는 외면받기 일쑤다. 광주의 경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대부분이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비계 될 자리를 채우지

못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도 다수라고 한다. 현재도 3차 기관에서 지역에서 가능한 수술까지 수도권으로 보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10년 후면 중증도 치료가 아예 불가능해 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할 경우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 다행스럽게 광주 첫 공공소아청소년과에 기독병원이 선정돼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이어지는 완결적 어린이 안심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진료 시작을 한참이나 앞둔 시간에도 대기석은 만석이다. 회사에 반차까지 내고 한없이 기다리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태부족이지만 전공의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아픈 아이를 안고 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기고



이 용 언 마을자치연구소 대표·광주마을학교 교장

마을은 모든살이의 터전으로, 우리의 생활과 태도,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자도 '어진 마을이 착한 사람을 만든다'며 택리(擇里), 마을을 잘 선택할 것을 권한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직장과 부동산 가격에 따라 옮겨 다니는 현실에서 마을은 고향의 추억 속에 있을 뿐이다. 간섭 없는 사생활과 편리한 아파트를 즐기던 '나 홀로 사회'가 이제는 탐욕과 이기심, 고독에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마을을 되돌아보고, 마을공동체를 되살려 보자는 마을만들기가 지난 20여 년 동안 지역혁신운동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그 중심에 광주가 있어 왔다. 정권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를 위한 새마을운동, 강제 철거반대로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도시빈민운동은 1987 이후 모든살이 공동체를 회복하지는 마을만들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광주 YMCA의 좋은동네만들기, 광주시북구의 아름다운마을만들기는 그 전형으로 시민사회, 주민운동의

마을만들기 되돌아보기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1989년 민선자치의 부활과 함께 마을만들기는 전국 지자체로 확산 되면서, 주민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가는 주민자치의 핵심 활동으로 주민이 이웃끼리 손 잡고 마을과 고향에서 마을자치를 실천하는 풀뿌리민주주의 현장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마을만들기 운동이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작년 12월 서울시가 마을만들기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마을 중간지원 조직을 폐쇄한 것에서 시작하여, 전국에서 마을공동체 운동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지자체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지난 20년 어렵게 성장하여 정착기에 들어선 마을만들기에 찬물을 끼얹는 퇴행적 일이다. 서울시가 마을만들기를 폐지하면서 든 이유는 마을만들기가 주민이 아닌 시민단체 출신 마을활동가 중심이며, 중간 지원 조직이 정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주민참여는 미약하다는 것이다.

물론 마을만들기가 급속히 확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시행착오나 마을공동체 방향을 잘못 실천하고 성과가 미흡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를 들어 마을만들기를 폐지하고, 마을활동가와 주민들을 거칠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 이유는 '2할의 분권 1할의 자치'라고 말할 정도의 작은 권한과 기울어진 구조에 있다. 마을현장의 관치 관행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마을재정도 문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쏟아지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과 이를 소화하기에 벅찬 마을의 역량과 자원이 여전히 부족하다. 주민들의 낮은 관심과 참여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런 것들은 주민과 마을활동가들이 마을 현장에서 늘 고민하는 묵은 과제로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다. 마을문제를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 스스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곧 마을만들기다. 도전에 선 마을만들기를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주제와 수행 방식, 추진 절차를 다시 되돌아보고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마을 현장에서, 주민 손으로, 마을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특히 보조금 파기에 급급한 사업으로 변질된 지원 방식, 마을계획, 마을의제, 마을총회, 주민참여예산이 따로따로여서 주민의사가 직접 반영되지 않고 변질되는 운영체계, 마을의 다양한 주민단체간 협력과 연대 부족도 바로잡아야 한다. 마을중간조직도 행정의 입김과 정치적 계산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마을만들기는 정부의 시혜적 보조와 지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단단한 마을공동체 의식과 친밀한 이웃 관계에서 시작하고 성장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때다.

기고



정 기 언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전쟁중 하나가 6·25 전쟁이다. 6·25전쟁은 1950년 6월25일 새벽 4시에 인민군 12만의 남침으로 시작돼 1953년 7월27일 12시 정오에 휴전으로 끝난 3년 전쟁이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들은 6·25 전쟁을 잘 모르고 있으며,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햇볕정책에 의한 남북 교류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체제는 변하지 않고 전쟁에 의한 적화통일을 하려고 가공할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여전히 전쟁 준비에 한창이어서 유엔은

6·25전쟁과 우리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자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역사는 지나갔지만, 과거를 바로 알고 현실을 바르게 판단해서 과거와 같은 악순환을 없애려면 역사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비참했던 6·25전쟁을 모르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들은 세계에서 가장 인권탄압이 심하고 악독한 공산 독재 체제에서 살지 못하고 탈북하는 수많은 탈북자를 보면서도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이 남한에서 산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그동안 북한은 폐쇄된 공산 체제를 유지하려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 독재정치와 인권탄압을 하면서 무력남침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기회만 보고 있다. 또 휴전선에 남침 땅굴을 뚫고 바다에서는 어부들을 납치한데 이어 수많은 납북간첩을 보냈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 있었다. 남한은 민주국가의 기반을 조성하고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

토개발과 경제건설에 힘써 오늘날 세계선진국 대열에 서게 됐다.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남북통일을 하려고 6·15공동선언에 따라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 북한의 개방화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된 국가로서 통일을 못하고 있으며 6·25전쟁의 비참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70세가 넘는 노령화가 돼 이산가족들의 상봉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며, 전후 세대들은 비참했던 6·25전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남북분단과 6·25전쟁의 비참한 역사를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과 교육을 맡은 교사들이 할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후손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이며, 6·25전쟁을 후손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며 해야 할 일이다.

아침물어는 詩

어르신 계절

권애숙

까무룩
저물고 있는
치연한 저 몸 한 채
공공 언
허공 길을
맨발로 밟고 서서
저리도 머뭇거리다
못 떨어진
한 세상

(시조집 '첫눈이라는 아해', 시인동네, 2023.)

[시의 눈]

기자가 한 '어르신'을 인터뷰합니다. 총알이 관통하고 지나간 흔적을 보여줍니다. 70여 년을 숨겨온 상처라 합니다. 낯선 경찰에 문초당하고 밤엔 빨치산에 물리며 공포에 떨다 결국 부모 형제가 몰살당했습니다. 어린 그는 어찌어찌 살아남았더군요. 전쟁이 끝난 후 살해는 끊이지 않았답니다. 동네 앞 야산, 그때 처형한 사람들의 식은땀 사이 카메라가 쫓습니다. 어르신의 '못 떨어진 한 세상'은 '공공 언' 기억을 붙들고 있습니다. 가족의 죽임, 그 공포를 무정한 세월에 맡겨 잊으려고 했더니요. '까무룩 저물고 있는' 지금 '한 채'의 몸을 당시 총칼 앞에 던져 부모님을 저 세상에서라도 만났더라면 하는 기막힌 죄책감과 트라우마가 보는 이의 울린 눈물조차 말합니다. 어르신은 갈라진 '맨발'로 땅을 짚곤 덩어 절단된 뭉툭 손으로 가슴을 칩니다. 아, 어찌 우리 잊으랴. 참으로 참으로 잔인한 '계절'입니다. 권애숙 시인은 경북 선산에서 1994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조와, 1995년 '현대시' 시로 등단했습니다. 시집 '카툰 세상'(2000), '흔적극장'(2018) 등을 펴냈습니다. 그는 삶의 이정표가 스스로 전략과 몸짓을 반짝이는 철학적 사유와 만나게 하는 시인입니다.

(<초청·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1)제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